

# 신약 '경건'의 기독교론적 이해

A Christological Understanding of  
Godliness in the New Testament

'영성'의 바람직한 개념 정립을 위하여

For a Due Understanding of the Contemporary  
Usage of the Word 'Spirituality'

---

황 창 기 교수

Prof. Dr. Chang-Kee Hwang

I. 서론	16
II. 경건에 대한 통상적 이해 경향: 신앙 윤리적 이해	16
III. 경건에 대한 새로운 이해 경향: '영성'으로 바뀜	17
1. 신비주의적 이해	18
2. 포괄적인 이해	21
3. 새로운 과제	22
IV. 경건의 성경적·신학적 이해	23
1. 경건의 비밀 요건: 문맥적 측면	23
2. 경건은 곧 그리스도: 문법적 측면	27
3. 경건은 곧 그리스도: 종말론적 측면	28
4. 경건은 곧 그리스도: 구속사적 측면	32
V. 결론	33

## Abstract

In recent days, it is not uncommon to see the terms 'godliness' or 'piety' substituted by the term 'spirituality'. 'Spirituality', as a term, originated from the Roman Catholic Church during the 1960s and then found its way into the churches of the Reformed camp.

Since then, spirituality as a term has become so commonplace that its connotation has become vague as its meaning has changed to suit the times. More specifically, spirituality has also entered our understanding of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with interpretations colored by concepts of mysticism.

As we encounter such theological turmoil, it is important to try to lay a guideline for this specific terminology so that a clear definition may be found which finds its roots firmly grounded in a Biblical foundation.

Generally speaking, godliness refers to the spiritual state or manner of believers based on their knowledge of God. Our research shows, however, that godliness must be understood with respect to Christ's Person and works. In other words, the origin or source of godliness is to be found in the Person and missions of Jesus Christ as opposed to being defined through the person and conduct of an average believer. Put more strongly, the standard of Biblical godliness can neither be understood nor defined through religious virtue of believers. Biblical godliness must be defined from Christ's Person. This Christo-centric aspect of 'godliness' has been paid scant attention throughout its historical interpretation.

The Biblical notion of truth, (as especially noted) in the Gospel of John, was not meant to be interpreted in a metaphysical manner. Likewise,

the meaning of godliness in the New Testament was not meant to be metaphysically interpreted or understood. Truth means Jesus and His Kingdom in John 18:37, just as 'godliness' denotes Jesus and His mission in 1 Timothy 3:16. Thus Biblical 'godliness' can be understood utilizing both redemptive-historical and eschatological perspectives.

To sum up, Biblical godliness should be defined in terms of Christ's Person and Missions. In the same manner, the usage of 'spirituality,' as a substitute for 'godliness,' should also to be used guardedly in a way which relates to it in a Christo-centric dimension.

황정기, 부산사범대학, 고신대학 및 동 신학대학원을 거쳐 미국 Westminster신학대학원에서 종교학 석사(MAR), 신학석사(Th.M.) 학위 취득. 남아 Potchefstroom대학에서 신학박사(Th.D.) 학위를 취득. 현재 고신대 신약신학 교수로 재직. 저서로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성광문화사)의 다수가 있다.

##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경건', '경건한', '경건하다' 라는 말들이 거의 모든 종교간에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도 그냥 사용되고 있다. 지금은 포스트모던 시대로 종교 다원화 시대이기에 더욱 분별없이 쓰여지고 있다. 따라서 '경건'에 대한 천주교의 이해와 개신교의 이해가 다른 것은 물론이고 또 각 신학 전통 사이에도 그 근본 이해가 다르다. 더욱이 다원화 되어 가고 있는 한국사회 속의 개혁교회들도 혼합주의의 영향으로 경건의 이해에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 안의 크고 작은 사건들도 경건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서 한국 개혁주의 교회의 '경건'에 대한 인식경향을 점검하고<sup>1)</sup> 이것을 성경적 용례에 비추어 신약이 말하는 '경건'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 II. 경건에 대한 통상적 이해 경향: 신앙 윤리적 이해

학자들은 성경사전 또는 신학사전적 정의를 통하여 '경건'이란 신앙적 윤리 범주로 기술한다.<sup>2)</sup>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근본적인 신앙적 품성으로서 경건은 신자의 삶의 행위로<sup>3)</sup> 정의되고 있다. 즉 경건 (godliness, piety)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이 경건(화란어: vroomheid)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 응답 (gelovig antwoord op Gods Woord)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 반응 (de gelovige reflectie op Gods Woord)인데<sup>4)</sup> 이는 신자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규정된다.<sup>5)</sup>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것은 곧 말씀을 통하여 형성된다. 신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6)</sup> 진정한 '경건'은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높히고 존경하는 매일의 행위 (conduct)이다.

## III. 경건에 대한 새로운 이해 경향: '영성'으로 바뀜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경건이 '영성'이란 용어로 대체되어 널리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 영성이란 말은 1960년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나온 말이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가 종래의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각종 범죄 및 엉뚱한 사회 현상에 따른 급격한 변화로 교회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책임감과 영적 각성을 통감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영성'이란 말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 말이 신비주의적 측면에서 그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오순절 내지 신오순절주의 진영에서 그들의 성령론적 관점에서 '영성'을 주장하고 있다.

1) 헬라어 *εὐσέβεια*, 라틴어 *pietas*, 영어 성경에서는 대개 *godliness* 로 쓰고 있으나 (KJV, NKJV), *piety*(DBY), 또는 *religion* 으로 쓰기도 함 (RSV, NASB, NJB).

2) 경건에 대한 해석 역사에 관해서는 I. Howard Marshall,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Edinburgh :T&T Clark, 1999), pp. 136-138 을 보라.

3) TDNT (in one vol.), pp. 1010-1014.; NIDNTT. vol 2, pp. 91-95.

4) Xavier Leon-Dufour, *Dictionary of the N.T* (trans. by T. Prendergast) (San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3), p. 323.

5) B. J. Oosterhoff/ W. Steenbergen, *Vroomheid in het Oude en Nieuwe Testament: Apeldoornse Studies*, No.7, (Kampen: J. H. Kok, 1974), p. 4, 28.

6) *ibid.*, p. 31

7) TDNT (abridged in one vol.) p.1012. 진정한 '경건'은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높히고 존경하는 매일의 행위(conduct)이다.

8) 김순성 교수와의 전화 대화 중에서 (2000년, 9월)

## 1. 신비주의적 이해

기독교 영성의 현주소를 논하면서 특히 칼빈을 중심으로 한 성령론은 한국적 '장로교주의 시각'에서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sup>9)</sup>

“... 더욱이 한국에 개신교를 심어 준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의 청교도의 영향 (또는 세대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거나 고작해야 앵글로 삭슨 교회 전통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영향 아래 서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장로교주의 시각에서 칼빈의 영성, 성령 신학 및 교회 갱신을 이야기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는 청교도의 신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고백하는 교회를 '고작해야 앵글로 삭슨 교회 전통...'이라고 말하는 태도로 보아 한국의 개혁주의 전통의 신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그는 칼빈의 신학을 신비주의로 보면서 다음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성령론)에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mystical union with Christ)을 성령 신학의 핵심으로 전개한다.”<sup>10)</sup> 계속하여 그는 “이 언어는 전형적으로 신비주의의 핵심 내용을 칼빈 자신의 성령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의미”<sup>11)</sup> 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또 칼빈의 성령론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역시 신비주의로 이해하고 이것을 칼빈의 영성이라고 한다. ㄱ) 창조의 영으로서 우주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성령. ㄴ)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성령. ㄷ)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틀 속에서 (perichoresis/ appropriationis) 모든 인간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는 영으로서의 성령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 번째 차원을 '신비

주의'의 문제로 취급한다고 한다.<sup>12)</sup> 그 신비주의의 핵심은 성령을 일종의 은총에 너지 또는 능력으로 파악하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과는 구별되는 것인데, 자기 정화(purgation), 조명(illumination), 합일(union)의 단계를 거쳐 고양되는 영혼의 내적 여행이라고 한다.<sup>13)</sup>

그러나 칼빈 자신은 신비(mystery)라는 말을 쓰면서도 '신비주의'(mysticism)란 용어는 거의 쓰지 않는다. 그는 성령으로 신자들이 몸의 지체로서 몸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엡 5:30)이 곧 신비(엡 5:32)라는 말을 하면서도 신비주의라고는 말하지 않는다(2.12.7).<sup>14)</sup> 사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마지막에 있는 주제 색인표에서 '연합'(union)이란 항목 밑에 나열된 '신비로운'(mystical)의 빈도수가 3권에 17번, 4권에 13번 모두 30번 정도 열거되어 있다.<sup>15)</sup> 그러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실제로 '신비로운 연합'(mystical union)이란 표현은 단 1번 나온다(3.11.10). 사실 '연합'이라는 말이 포함된 표현은 약 30번 열거되었으나 그중에서 '신비로운'이란 형용사를 사용한 표현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인표에 '신비로운 연합' 약 30번 정도 열거된 것은 이 책의 색인표 작성자의 신학적 견해 때문이다. 실제로 칼빈은 이와 관련된 항목을 '특별연합'(special union), '거룩한 연합'(holy union), '은혜로운 연합'(gracious union)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색인표 정리자가 이런 표현을 모두 '신비로운'이란 항목에다 배치해 버린 것이다. 말하자면 색

12) *ibid.*, p. 3.

13) *ibid.*, p. 2.

14) [Matthew 19:4-6]. Here he is not discussing the mystical union with which he graced the church, but only fidelity in marriage. For this reason he teaches that God declared man and wife to be one flesh in order that no one should try to break by divorce that insoluble bond. If Osiander dislikes this simplicity, let him blame Christ for not leading his disciples into a mystery by more subtly interpreting his Father's words. Nor does Paul support Osiander's delusion. When Paul has said that we are flesh of the flesh of Christ Ephesians 5:30-31, he adds at once: "This is a mystery" [Ephesians 5:32]. For Paul did not mean to tell in what sense Adam uttered the words, but to set forth under the figure and likeness of marriage the holy union that makes us one with Christ. Even the words themselves express this! For when he informs us that he is speaking of Christ and the church, by way of correction he distinguishes between the rule of marriage and the spiritual union of Christ and the church. (참조 3.1.13-14) <밀줄은 필자의 것>

15) F. L. Battles ed. *The Piety of John Calvin: An Anthology Illustrative of the Spirituality of the Reforme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p.1708.

9) 정승훈, "기독교 (개혁주의) 영성의 현주소": <영성신학원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 1999? >, p.1.

10) *ibid.*, p. 2.

11) *ibid.*

인표 작성자가 마치 칼빈이 신비주의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칼빈의 신학이 색인 작성자의 신학으로 포장되어 버린 것이다.

화란의 Apeldoorn 신학대학원의 교수인 B. J. Oosterhoff와 W. Steenbergen는 그리스도(또는 하나님)와 신자의 연합에서 신비적(mystiek)이란 말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에 나오는 '거하심'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즉 요한복음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에 나오는 '거하다'는 말에는 '직접적인 신비로운 교통'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sup>16)</sup> 이 점은 칼빈이 '거하심'(1요 3:24, 4:13)에 대하여 논할 때 신비주의라고 하지 않는 점(3.1.4)과 같다.<sup>17)</sup>

이 주제를 신비주의 입장에서 다루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물론 "그리스도와 연합(union with Christ)"은 개혁주의 교의학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그러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신비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신비' 그 자체라는 점이다. 우리가 가끔 '목회도 신비요, 설교도 신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때 우리는 신비주의를 표방하고 지향하지 않는다. 다만 목회나 설교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말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신비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신비주의가 교계에 끼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μυστήριον)'이라고 할 때 '비밀'이라고 번역하기보다도 '오묘'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정도이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권위는 세워야 하지만 '권위주의'는 거부해야 하는 경우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는 풍성하게 누려야 하지만, 이것을 '신비주의'로 이

해하는 것은 거부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전통적 개혁교회가 그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아쉬워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은 이해된다. 그러나 전통적 개혁교회의 기본 교리를 비하하고, 신비주의가 영성의 요체로 인식하는 점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 영성을 신비주의와 결부하여 사용하는 것은 온갖 혼합주의가 난무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더욱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경향은 또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비약시키는 도약대가 될 뿐이다.

## 2. 포괄적인 이해

우리 교계에서 '영성'이라는 말이 신비주의로 이해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영성'이란 말을 너무 다양하고 광범하게 사용하는 점도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그 뜻이 다른 것도 또한 문제라는 말이다.

오늘날 '영성'이라고 하면 기독교(Christianity) 자체를 의미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독교 신학 및 신앙, 원리, 마음가짐, 영혼의 상태, 태도 등의 뜻으로도 사용되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은 것 같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할 때 반드시 이에 따른 설명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은 '영성'이라는 주제로 여성 신학의 새로운 진로 쪽으로 글을 쓰기도 하였다. 그 일례로 "새 천년 시대의 새로운 영성"에서 성경의 가부장 문화와 여성 억압적 본문들, 성경의 여성 해방적인 본문들, 성의 고경관념을 파괴하고 있는 본문 등을 다루고 있는 점이다.<sup>18)</sup> 어떤 목사는 "통일의 영성"이란 글에서 한국 교회가 갖추어야 할 태도를 열거하였다. 그는 통일 영성이라고 하면서 지적 정직성, 사고와 행동의 유연성, 이타적인 마음과 실천적인 자세를 강조하였다.<sup>19)</sup> 이와 같이 '영성'이란 말이 너무 생소하고 주관적일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때로는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용되어지고

16) B. J. Oosterhoff/ W. Steenberg, *Vroomheid in het Oude en Nieuwe Testament: Apeldoornse Studies*, No.7, (Kampen: J. H. Kok, 1974), p. 32.

"... Darmee is in de eerste plaats de mystiek, in de strikte zin van een onmiddellijk contact of zelfs een versmelting met het goddelijke, uitgesloten. Ook wanneer uitdrukkingen gebruikt worden, die zeer sterk de eenheid tussen Christus, resp. God en de gelovigen benadrukken, zoals het in de Johanneische geschriften veel voorkomende "blijven in", dan is toch geen sprake van een directe mystieke gemeenschap "

17) 그러나 오늘날 이를 신비주의로 보는 학자도 있다. 참조: K Munzer, NIDNTT, vol. 3, p. 225 "The statement that Christ abides in (mejnw ejn) the believers is a statement with an indubitably mystical element; it creates an inner unity, a unio mystica" (강조는 원문)

18) 장춘식, "새 천년 시대의 새로운 영성", 『기독교사상』, 500 (2000, 08) : 206-219.

19) 서정환, "통일의 영성: 남북화해 시대의 독일 통일의 경우에 비추어", 『교회와 신학』, (2000, 여름호) : 12-20.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영성'이란 말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다.

### 3. 새로운 과제

최근까지는 '경건'이란 신자가 지니는 일종의 신앙 인격적 자세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에 '경건'이란 말이 '영성'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경건'이란 말이 쓰일 곳에 '영성'이란 말이 자리를 잡으면서 '영성'이 신비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성령론이 되어버린 점인데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사실 '영성'이란 과거에는 듣지 못했던 말인데 근래에 새로 들어와 다양한 신학 및 신앙 사상을 포용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개혁교회들은 '영성'의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개혁교회가 '경건'이해에 대한 새로운 신학작업을 서둘지 않으면 그 정통성마저 거부당할 위기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경건'이란 말이 '영성'으로 대체되는 교계의 상황에 따른 일정한 지침이 없이는 전통적 개혁교회 신앙의 순수성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언어가 지니는 사회적 기능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용어란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대상: referent)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sup>20)</sup> 그리고 그 용어에 담겨진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용어 자체를 다시 규정하며 또 변화를 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언어가 지니는 사회적 기능의 일부이다.

따라서 '경건' 대신에 쓰이기 시작한 '영성'이란 말이 신비주의의 핵심으로 이해되고 있는 경향에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적 개혁교회의 신학도 신비주의로 지향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경건'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신비주의적 경향을 따라야 '영성'이 뛰어난 것으로 통용된다고

생각해 보라. 만일 이처럼 개혁교회의 신학이 신비주의 경향으로 기울어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변화와 변질을 강요하는 셈이다. 개혁교회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경건'이란 말을 써오던 개혁교회가 '영성'이란 말이 흥수처럼 범람하는 한국교계의 현실에서 '영성'이란 말의 사용에 대해 적절한 신학적 지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영성'이란 말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도 감안하면서 '경건'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이해를 근원적으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 IV. 경건의 성경적 - 신학적 이해

지금까지 '경건'이란 신자가 지니고 있는 영혼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해해 왔는데, '경건'이란 말이 들어 있는 대부분의 성경 구절<sup>21)</sup>이 성도의 영적 상태 및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이것만을 말하는가? 신학이 경건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점은 없을까? 우선 경건에 대한 주요 구절들<sup>22)</sup> 중에서 특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경건의 비밀 요건 : 문맥적 측면

#### 1) 디모데전서 3:16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형편(딤후전 1:3)과 관련하여 디모데에게 살아 계신

21) '경건'이란 말은 신약(개역)에서 48번, 구약에 9번 총 57번 나오는데 신약에는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다.(bnc 2000)

요 9:31; 행 2:5; 3:12; 8:2; 10:2,7; 13:43,50; 17:4,17; 22:12; 롬 1:18; 4:5; 5:6; 11:26; 빌 4:8; 딤후전 1:9; 2:2; 3:16; 4:7,8; 6:3,5,6,11; 딤후 2:16; 3:5,12; 딤후 1:1; 2:2,7,12; 히 12:28; 약 1:26,27; 벧전 4:18; 벧후 1:3,6,7; 2:5,6,9; 3:7, 11; 유 1:4,15,18

22) 경건(εὐσέβεια godliness)이 KJV에 15번 나온다.(딤후전 2:2, 2:10, 3:16, 4:7,8, 6:3,5,6,11 ; 딤후 3:5, 딤후 1:1, 벧후 1:3,6,7,3:11) 이 중에서 디모데전서 2:10은 θεοσέβεια이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지시하면서(딤후전 3:14-15) 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a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i>καὶ ὁμολογουμένως</i>	
b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i>μέγα ἐστὶν τὸ τῆς εὐσεβείας μυστήριον</i>	
c	그는 <sup>23)</sup>	<i>ὁς</i>	
d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i>ἐφανερώθη ἐν σαρκί,</i>	A
e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i>ἐδικαιώθη ἐν πνεύματι,</i>	B
f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i>ὠφθη ἀγγέλοις,</i>	C
g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i>ἐκηρύχθη ἐν ἔθνεσιν,</i>	C'
h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i>ἐπιστεύθη ἐν κόσμῳ,</i>	B'
i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i>ἀνελήμφθη ἐν δόξῃ.</i>	A'

경건의 비밀은 '그 분' (ὁς: 그리스도)과 그의 하신 사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인격(Person)과 사역(Works)으로 경건의 비밀이 표시되었다는 말이다. 여섯 가지의 사역 하나하나가 비밀이요 또 그 전체가 경건의 비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구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sup>24)</sup> 그러나 그

23) 대부분의 서방사본은 ὅ(which)로 표기하고, 다수사본을 포함한 많은 사본에서는 θεός (= God)로 표기하여 'God was manifested...' (KJV)로 번역됨.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주어는 '그리스도'임.

24) 지금까지 주장되어온 딤후전 3:16의 구조에 대하여는 대개 다음 3부류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러나 더 자세한 것은 I. Howard Marshall,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Edinburgh :T&T Clark, 1999), pp.500-502를 참조하라.

1) 6가지의 그리스도 사역이 단순히 시간을 따라 나열된 형태로 보는 견해이다. 즉 16절에서 d-e-f-g-h-i 순서로 배열되었다는 말이다.

2) 3줄씩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견해이다. 그래서 첫 3줄 (A, B, C)은 예수님의 성육신 삶(the life of incarnation)을 묘사하고, 두 번째 3줄 (C', B', A')은 영광을 받으신 주심 (the exalted Lord)을 나타낸다고 본다. 곧 아래로 땅의 것과 위로 하늘의 것 나누는 두 종류의 큰 영역끼리 역순병행구조 (inverted parallel structure)를 이루고 있다.

3) 이 부분은 2 줄씩 3 그룹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d<지상>,e<천상> ... f<천상>,g<지상>... h<지상>,i<천상> 첫째와 둘째 그룹끼리 (지상: 천상 -천상: 지상), 그리고 둘째와 셋째 그룹끼리

견해들은 모두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어느 경우이나 이 부분은 지상 및 천상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manifestation)과 의롭게 되심(vindication)을 노래하며 그 드러나심의 방법을 확인한 셈이다. 종전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귀(exaltation)로써 그분에 대한 전통적 이해가 보다 더 확대되고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교회의 사명에 대한 특별한 묘사로서 주께서 지지받는 과정을 자세히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sup>25)</sup>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특수 구조로 표현된 비밀은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묘' 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깊이를 더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이 비밀은 열어보면 별것 아닌 것을 가리워 숨긴 것이 아니라, 열어보아도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비밀' 보다 '오묘'가 더 적합한 용어라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말하자면, 경건의 비밀이란 단순히 신자가 지니는 영혼의 상태나 덕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sup>26)</sup> 우선 신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incarnation)에서 승천(ascension)하시기까지의 구속사역<sup>27)</sup>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고 있다. 즉 경건의 비밀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뺄 수 없다고 하겠다.

## 2) 디모데전서 4:7-8

7a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τοὺς δὲ βεβήλους καὶ γραδῶδεις μύθους παραιτοῦ*

7b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리 (천상: 지상 - 지상: 천상)는 각각 역순병행법을 이룬다.

교차대칭구조는 축점을 가지고 있고 역순병행법은 구조에 초점이 없다: A-B-C-<D>-C'-B'-A' [chiastic structure]; A-B-C-C'-B'-A' [inverted parallel structure]

25) I. Howard Marshall,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Edinburgh :T&T Clark, 1999), p. 502.

26) Ibid.

27) Hendriksen, (ibid.)은 "낮아지심에서 높아지심으로 옮겨가는 노래" (humiliation -to- exaltation hymn)라고 한다.

γύμναζε δὲ σεαυτὸν πρὸς εὐσέβειαν

8a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ἡ γὰρ σωματικὴ γυμνασία πρὸς ὀλιγον ἐστὶν ὠφέλιμος

8b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ἡ δὲ εὐσέβεια πρὸς πάντα ὠφέλιμός ἐστιν

8c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ἐπαγγελίαν ἔχουσα ζωῆς τῆς νῦν καὶ τῆς μελλούσης

여기서 '경건'은 연습하여 도달하는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7b). 전치사 πρὸς는 실제적인 운동(motion) 및 문자적 방향(direction)을 가리켜<sup>28)</sup> KJV에는 unto(godliness)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7b)는 '경건에까지 자신을 연습하라'(exercise yourself unto godliness :KJV)로 직역할 수 있다. 육체의 연습(8a)과 경건(8b)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데 경건도 육체적 연습에 대한 일종의 영적 연습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생명(ζωή)이 경건의 개념과 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개역 성경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8c) 경건은 '지금의 생명과 오는(세상)의 생명의 약속을 가지는' 경건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εὐσέβεια)은 생명의 약속을 가진다(ἐπαγγελίαν ἔχουσα ζωῆς)는 점이 독특하다. 그런데 '생명의 약속'은 곧 약속이 다름 아닌 생명(ζωή)이다. 이것에 대한 것은 뒤에서 자세히 논할 '설명 보족 속격'(epexegetical genitive) 또는 동격 속격(genitive of apposition) 용법<sup>29)</sup>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해서 이 경건은 약속, 즉 생명(ζωή)을 가지고 있다.<sup>30)</sup> 이 생명은 목숨(ψυχή)과는 다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1 요 5:11). 여기서 우리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니는 경건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직역: "경건에까지 자신을 연습하라")는 표현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엡 4:15)는 말씀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겠다. 즉 '경건에까지'는 '그에게까지'로 바꾸어 써도 된다. 따라서

28) M. J. Harris, NIDNT, vol.3 p.1204.

29) M. Zerwick, Biblical Greek, : SCRIPTA PONTIFICII INSTITUTI BIBLICI, 114, (Rome: 1963), pp. 43-46.

30) ἐπαγγελίαν ἔχουσα ζωῆς (having promise life)에서 분사 ἔχουσα 의 주어는 εὐσέβεια (경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언급하였지만 신자의 신앙적 태도 및 윤리적인 면에서 경건을 이해하여 온 종래의 정의에 근원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여태까지의 경건의 이해 경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Person)과 그 사역(Works)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신자의 영적 상태 및 조건 중심으로 이해하여 왔기 때문이다.

## 2. 경건은 곧 그리스도: 문법적 측면

디모데 전서 3:16의 경건의 비밀(τὸ τῆς εὐσεβείας μυστήριον)이란 표현에 나오는 속격은 문법적으로 서로 동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앞의 설명에서 이미 이것을 설명 보족 속격(epexegetic genitive) 또는 동격 속격(genitive of apposition)이라 하였다.<sup>31)</sup> 따라서 여기서 '경건'과 '비밀'은 서로 동격으로 경건이 곧 비밀이라는 말이다.

성경에는 이러한 실례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나의 표적'(τὸ σημεῖον Ἰωνᾶ; 마 12:39)은 요나가 보여주는 표적 또는 요나에게 주어진 표적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 표적이란 말이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선물'(τὴν δωρεάν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행 2:38)은 성령이 곧 선물이란 뜻이고 '성령의 담보'(τὸν ἀραβῶνα τοῦ πνεύματος; 고후 1:22)란 말은 성령이 곧 보증이란 뜻이다. 그리고 '땅(의) 아래 곳(κατώτερα μέρη) τῆς γῆς; 엡 4:9)은 땅 밑에 있는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에 비하여 '땅 자체가 곧 아래 곳'임을 나타낸다. 또 '몸인 교회의 머리'(ἡ κεφαλὴ τοῦ σώματος, τῆς ἐκκλησίας): 골 1:18)는 직역하면 '교회의 몸의 머리'인데, 여기서의 교회가 곧(그리스도의) 몸이란 뜻이므로 몸된 교회의 머리란 뜻이다.

같은 문법 구조를 가진 '경건의 비밀'(τὸ τῆς εὐσεβείας μυστήριον)이란 경건이 곧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말이다. 이 해석은 디모데전서 3:16의 문맥에 나타난 그대로이다. 또 비밀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데 그는 만세와

31) Zerwick op cit.



만대로부터 음으로 감취었다가 신약시대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골 1:26-27).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다(골 2:2-3). 그렇다면 경건은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결국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sup>32)</sup> 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 경건을 이해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건'이란 신자의 신앙적, 신학적 명제로 표현하기 전에 예수님의 인격적, 사역적 명제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3. 경건은 곧 그리스도: 종말론적 측면

이제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경건이 예수님의 인격 및 사역에서 그 출발점을 삼는 경우와 같은 것을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1) 에베소서 3:3-6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딤후 1:3)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와 에베소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다. 우선 바울이 두 서신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의 비밀' (τὸ μυστήριον τοῦ Χριστοῦ)은 우리 목적을 위하여 '경건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의하여 차츰 차츰 밝혀지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unification)이 새로운 몸인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sup>33)</sup>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4 절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 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this mystery)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엡 3:3-6)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sup>34)</sup>가 되는 것을 비밀이라 한다. 이것은 에베소 2:15에서 "...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sup>35)</sup>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한 새 사람 (one new man)으로 창조된 신약교회와 연결된다. 신약교회를 여럿(many)으로 말하기보다 '한 새 사람'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온 교회적 인격' (whole church Person)의 특성을 나타낸다.<sup>36)</sup>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온 교회적인 인격의 특성을 지닌 예수님 인격과 동일시되는 신약교회 [주의 제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행 9:4)]. 즉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시사의 진전에 따라 보이지 않는 교회(invisible church)의 일부로서 '한 새 사람'의 교회, 종말론적 교회, 곧 에베소 교회가 창조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말한다.<sup>37)</sup>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곧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미 말하였다. 신약교회를 여럿(many)으로 보지 않고, 하나(One)로 보는 예수님의 인격 관계에서 볼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종말론적 교회로 창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것은 곧 경건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경건의 비밀

34) εἶναι τὰ ἔθνη συγκληρονόμα καὶ σύσσωμα καὶ συμμετόχα τῆς ἐπαγγελία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διὰ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συν [함께]의 합성어가 3번 쓰임)

35) ἵνα τοῦ δύο κτίση ἐν αὐτῷ, εἷς ἓνα καινὸν ἄνθρωπον... (κτίζω [create]를 사용하여 '한 새 사람' (교회)을 짓는 행위는 새 창조행위를 나타냄)

36) 황창기, "개혁주의 종말론 이해의 새로운 전향", 「고신신학」 창간호 (1999), pp. 24-25.

37) Hij schept de twee in vijandschap met elkaar levende groepen tot een nieuwe mens. Hij maakt van de heidenen geen Joden en van de Joden geen heidenen, maar Hij voegt beide samen tot iets geheel nieuws, een nieuwe mens ... Deze ene nieuwe mens is de nieuwe mensheid en daarmee is dan bedoeld de kerk. De kerk is een scheppingswerk van Christus. Christus heeft dit gedaan in Zichzelf. De kerk als een nieuwe mens, een lichaam, een organisch geheel vindt haar bestaan in Christus.

32) Hendriksen, op cit. p. 137 "That the expression ... refers to Christ is clear from the fact that whatever follows in verse 16 refers to him" <밑줄친 이탤릭체는 필자의 것임>. *The NIV Study Bible*, p.1839, "That secret, as the following words indicate, is none other than Jesus Christ."

33) *The NIV Study Bible*, p. 1794, "Here the word 'mystery' has the special meaning of the private, wise plan of God, which in Ephesians relates primarily to the unification of believing Jews and Gentiles in the new body, the church." <밑줄친 필자의 것>

이 동일시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경건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2) 요한복음 18:36-38

‘경건의 비밀’ 또는 ‘경건’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현대 성도들에게는 얼른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의미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임을 이해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심문 중에서 ‘진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요 18: 36-38상)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sup>38)</sup> 또는 “지금...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sup>39)</sup> 고 하신다. 그러자 빌라도는 “네가 왕이 아니고 무엇이냐?”, 즉 “네가 왕이지 않느냐?” 하고 되묻는다.<sup>40)</sup> 그 때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강조하신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주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언하신다.<sup>41)</sup> 주님은 이를 위하여<sup>42)</sup> 나셨고 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하신다. ‘이를 위하여’란

‘주님 나라의 왕 되시기 위하여’란 뜻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란 표현의 내용이 뒤에 설명되고 있다.<sup>43)</sup> 그것은 곧<sup>44)</sup>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님’과 ‘그의 나라’ 그리고 ‘왕 되심’을 모두 내포한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 즉 이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수용한다. 그리고 ‘진리에 속함’(37절: ὧν ἐκ τῆς ἀληθείας)은 ‘이 세상에 속함’(36절: ἔστιν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과의 구문 구조(syntactic structure)가 정확하게 일치한다.<sup>45)</sup> 그리하여 ‘진리’는 이 ‘세상’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다. 이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은 곧 하나님 나라(αὐτὸ βασιλεία)이시기 때문이다.<sup>46)</sup>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있듯이 ‘진리’에도 속한 자가 있다는 말이다. 이 ‘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이다.

그러므로 이 문맥에서 ‘진리’란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말한다. 따라서 ‘그의 나라’라는 표현은 곧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나타내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는 곧 예수님(요 14:6)인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진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속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목적을 위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다음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로 진리는 단순히 하나의 철학적 실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빌라도는 진리를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것은 인격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철학적으로 물은 것이다. 즉 ‘누구’

41) L.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I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p.770.

42) εἰ τοῦ το

43) M. Zerwick,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3) p.340 ; \_\_, *Biblical Greek*, ss.213.; A. 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vol.V,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32), p.294 “Note repetition of εἰ τοῦ το (for this purpose), explained by ἵνα μαρτυρήσω τῇ ἀληθείᾳ (that I may bear witness to the truth).”

44) ἵνα 는 expegegetic infinitive (Zerwick, §.410)

45) 같은 동사 + 같은 전치사 + 속격 명사

46) 황창기, 「포도원 일꾼 비유의 해석과 실교」, 『개혁교회의 정로: 허순길 박사의 은퇴기념 논문집』, (고려신학대학원 출판부, 1999), pp.142-146.

38) Ἡ βασιλεία ἡ ἐμὴ οὐκ ἔστιν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39) νῦν δὲ ἡ βασιλεία ἡ ἐμὴ οὐκ ἔστιν ἐντεῦθεν.

40)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Oujkou’ n basileu;’ eil) suv)는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다. 즉 ouj + 직설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박창환, § 437). 그러므로 빌라도의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왕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의미가 드러난다.

(who)를 '무엇'(what)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둘째로 '진리'는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가리킨다. 14:6에서는 예수님이 진리이지만, 여기서는 예수님, 주의 나라, 그의 왕 되심을 포함하여 '진리'라 한다. 따라서 이 진리는 이미 (already)와 아직(not yet)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주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우리 목적을 위하여 정리하자면, 진리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이해하듯이 경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 4. 경건은 곧 그리스도: 구속사적 측면

우리는 경건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어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다.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경건과 관련된 많은 언급들이 성도의 경건에 관련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성도들의 경건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 및 그들의 신지식에 입각한 신앙 인격적인 태도로 규명되어 왔던 것이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부터 경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따라 새롭게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고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이 온 교회적 인격으로서 성도들을 포함하는 면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 성도의 경건은 온 교회적 인격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통일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초한 성도의 경건은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경건'(εὐσέβεια)의 근원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이 오순절 이후의 기사, 특히 목회서신에서부터 사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sup>47)</sup> 마치 '신령한'(πνευματικός)이란 말이 오순절 이후의 기사에서 나오므로 구속사적인 진전을 반영하는 것처럼<sup>48)</sup> '경건'이란 말도 오순절 이후에 나와서 구속사적 진전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 이 두 가지 말은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현상은 '신령한'이란 말의 상태와 '경건'의 본질이 오순절 성령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신

47) 딤후 2:2, 3:16, 4:7,8, 6:3,5,6,11, 딤후 3:5, 딤후 1:1, 베후 1:3,6,7, 3:11.

그리고 '경건한'(eujsebhn) = devout)이란 말도 사도행전 10:2,7, 22:12 에만 나온다.

48) 롬 1:11, 7:14, 15:27, 고전 2:13,15, 3:1, 9:11, 10:3,4, 12:1, 14:1,37, 15:44,46[2], 갈 6:1, 엡 1:3, 5:19, 6:12, 골 1:9, 3:16, 베후 2:5[2], 그리고 부사형인 πνευματικῶ"도 고전 2:13,14 계 11:8에만 나온다.

령한'이란 말이 묘사하는 상태가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비롯된 것과 같이 '경건'이란 말이 묘사하는 특성도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적 변혁에 따른 성도의 구속사적 변혁을 말한다.<sup>49)</sup> 이 구속사적 변혁을 고린도전서 15:44-46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Ἐγένετο ... ὁ ἔσχατος Ἀδάμ εἰς πνεῦμα ζωοποιῶν') 변혁으로 말한다.<sup>50)</sup> 그래서 '주님은 영이시다' (ὁ δὲ κύριος τὸ πνεῦμά ἐστιν)고 선언한다(고후 3:17).

따라서 '경건'도 오순절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life-giving Spirit)이 되신 주님과 그 영을 받은 신약교회 성도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적용될 수 없는 말이 곧 '경건'이다.

## V. 결론

한국 교회에서 '경건'이 '영성'으로 대체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현실은 이 시대의 신학언어적 조류이다. 따라서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 현상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신학적 지침을 마련하여 교계를 선도하는 것이 개혁신학의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Coram Deo) 사는 신자의 영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경건이란 신자의 영적 상태를 가리킨다는 종래의 이해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욱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인격 중심의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함을 규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경건이란 신자의 신앙 윤리적 주제가 전부가 아니다. 경건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

49) R. B. Gaffin, *The Centurality of the Resurrec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참조.

50) [죽은 자의 부활도] ...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고전 15:44-46). 주는 영이 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후 3:17).

스도의 인격적 주제라는 것이다.

이제 '경건의 비밀'이 곧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해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별로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관련 구절의 문맥이나 문법적, 신학적 관점에서 '경건의 비밀'이란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 없겠다.<sup>51)</sup>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더 크신 만유적 인격(πάντα Person)을 가지신 분이요 동시에 모든 성도와 신비롭게 연합된 온 교회적 신분(whole Church Person)이심을 명심하여야 한다.<sup>52)</sup>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이시다. 마치 진리란 형이상학적(metaphysical)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personal) 문제이듯이 경건도 그 근원이 신자의 신앙 윤리 도덕적 문제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신자로 구성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경건은 신자가 선물로 받은 종말론적 특성이다. 이것은 칭의, 거룩, 구원, 성령... 등등과 같이 신자 자신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already) 선물로 받아 현재 지니게 되었으나 아직 완벽하지 못한(not yet) 선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 마지막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즉 경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임무 이전에 우리 성도가 이미 지니고 있는 본질상의 품격의 면이 있다. 그래서 성도라면 경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우리는 경건한 자손이 이미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임무이다. 그 원천을 성도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둔 경건이란 말은 지금까지 쓰여온 그대로 신자 각자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연합을 하였기 때문이다. 구원사적으로 볼 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는 변혁에 따라 성도가 신령한 자로 변혁하듯이, 경건도 신령한 자의 것으로 구원사적 측면이 있다.

종합적으로 '경건' (godliness, piety) 그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적 (Christo-centric)이다. 따라서 '경건'이란 말 대신에 쓰이기 시작한 '영성'

(spirituality)이란 말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교계에서 이 말을 모호하게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성경적·신학적·지침의 대 원칙이라고 하겠다. □

참고도서 (석의 관련 도서 제외)

정승훈, 「기독교 (개혁주의) 영성의 현주소」 \internet\신학관\기타자료\개혁주의 영성의 현주소.htm (99-11-08) :1-6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예수님의 인격에 비취본 신약의 구속사적 해석과 설교」, (서울:성광문화사, 1998);

황창기, 「개혁주의 종말론 이해의 새로운 전형」, 고신신학 창간호 (1999: 14-48)

황창기, 「포도원 일꾼 비유의 해석과 설교」, 「개혁교회의 정로: 허순길 박사의 은퇴기념 논문집」, (1999: 139-158)

F. L. Battles ed. *The Piety of John Calvin: An Anthology Illustrative of the Spirituality of the Reforme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Richard Dormandy, "The Ascended Christ and His Gifts", *The Expository Times*, 206-207.

W. K. Grossouw, *Bijbelse Vroomheid: Beschouwingen over de Spiritualiteit van het Nieuwe Testament*, 6e druk, Utrecht: Aula-Boeken, 1964.

Ernest Kaeseman, "The Gospel and Pious", *Fellowship for Biblical Studies*, ?? (1990) :1-9.

I. Howard Marshall,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Edinburgh :T&T Clark, 1999.

B. J. Oosterhoff/ W. Steenberg, *Vroomheid in het Oude en Nieuwe Testament: Apeldoornse Studies*, No.7, J. H. Kok, Kampen 1974.

W. H. Velema, *Nieuw zicht op Gereformerde Spiritualiteit*, Kampen 1990.

51)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6 (1 Timothy) p.818 : "Wh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It is Christ; and here are six things concerning Christ, which make up the mystery of godliness"

52)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예수님의 인격에 비취본 신약의 구속사적 해석과 설교」, (서울:성광문화사, 1998); 그리고 「개혁주의 종말론 이해의 새로운 전형」, 「고신신학」 창간호 (1999: 14-48) 참조.